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 ETF가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6월 19일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레버리지 ETF 약 8.2조원, 인버스(2×) ETF 약 0.3조원 수준이다. 출시 직후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보면 레버리지 구조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형 ETF와 코스피 지수형 ETF의 순매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도 확대가 나타났지만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형 ETF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상품 출시 이후 상승하였다. 이는 단일종목 ETF의 리밸런싱 거래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종목에서도 변동성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단일종목 ETF는 그 구조적 특성상 리밸런싱 거래가 변동성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역추세추종 매매 행태가 나타나면서 리밸런싱 거래의 영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NAV 상승 효과로 레버리지 ETF의 AUM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점차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AUM 증가 추이와 변동성 국면에서의 리밸런싱 거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자들도 주가 상승 이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종목 쏠림 위험을 감안하여 위험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했을 때 “혁신성장기업만의 시장”이라기보다 “혁신기업을 포함한 이질적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 결과, 코스닥시장에는 R&D 집약도가 높은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동시에, 수익성·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군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중위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상위 연구개발 집약기업군과 하위 수익성 취약기업군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시장 내부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구성 측면에서도 IT와 의료 등 성장·혁



신 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코스닥의 혁신성장시장 성격은 유지되고 있으나, 산업별 수익구조와 위험 특성의 차이로 인해 시장 내 분포 폭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시장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우량·혁신기업과 취약기업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코스닥시장 전체의 평판과 투자자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스닥 시장의 정책 방향은 시장 전체에 단일한 혁신성장시장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 대표기업의 위상 제고,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부실위험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 내 기업군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세그먼트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공시·상장관리·투자자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인프라의 재구성: 글로벌 CSD의 진화와 국내 후선 인프라 시장의 변화

연구위원 정수민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록·보관 중심 기능을 넘어 다자산·다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DTCC, Euroclear, Clearstream 등 주요 CSD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단절된 별도 시장으로 다루기보다, 발행·보관·결제·권리관리 체계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상호운용성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원장, 전통 금융 인프라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부채 인식, 소유권 확인, 자산 이동 프로토콜, 원장 관리, 법적·규제 정합성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거래 인프라의 경쟁 도입,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 논의, 토큰증권 제도화 등으로 인프라 구조가 다층화되고 있다. ATS 도입이 거래 인프라의 혁신을 촉진한 것처럼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도 비상장주식 시장의 서비스 개선과 권리관리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후선 인프라는 자산의 동일성, 권리자의 확정, 장부 간 정합성, 법적 효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향후 상장증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서로 다른 등록·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내 자본시장 역시 경쟁 도입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 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융합

선임연구원 홍지연

최근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진전과 금융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 수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종합 금융 플랫폼화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금융혁신과 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과 이해상충,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를 수반하는 만큼 관련 규율 체계와 위험관리 장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선임연구원 정지수

우리나라 상장시장은 부실기업의 장기 잔류와 낮은 퇴출비율로 인해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신설하는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미국, 일본의 경우 개선 절차, 심사, 내부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계속상장 적격성을 관리하는 바, 이번 국내 개정은 정량 기준과 심사·회복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준 미달 기업의 신속한 퇴출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향후 부실기업의 장기 잔류를 줄여 투자자 피해와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을 낮추고, 자본시장 신뢰와 코리아 프리미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적 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